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앞장서시다

공학박사 김 재 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내 생애에 선생님과 같이 한없이 맑고 순수한 영혼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뚜렷이 추구하고 떠나신 큰 스승을 만난 것은 나에게서는 대단한 행운이다. 지금도 취산 선생님을 마음속에 떠올리면 그냥 몇 가지 느낌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나질 않는다. 그 느낌이란 마음이 편해지고 항상 진지하고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 분의 파동이 가슴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나는 미래사의 여러 회원들 같이 취산 선생님과 오랜 만남을 가진 것은 아니다. 내가 선생님을 처음 본 것은 아바타 교육을 처음으로 마치고 그 감동에 취해서 약 두 달이 지난 즈음인 1995년 5월의 어느 눈부시게 화사한 봄날이었다. 아바타 교육은 받았지만, 내 의식의 저변에는 아직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미진한 느낌이 계속 남아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리뷰를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이었다. 마침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10여명의 아바타 마스터들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아바타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하고, 토요일 오전에 시작된 교육에 나는 오후부터 참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나마도 당시 업무상의 바쁜 일로 인해 단지 사흘을 참가했을 뿐이었지만 취산 선생님을 처음으로 만나 뵈게 되는 행운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 뵈는 낯설은 노인이었지만 오랜 연륜과 함께 풍기는 특유의 친근함과 온화함을 느낄 수 있었고 무언가 강렬한 끌림이 있었다. 대개 기 수련을 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기감으로 말한다면 그분 주위에는 부드럽고 포근하면서도 사람을 끌어들이는 강렬한 기운이 감싸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단전호흡을 통한 선도수련을 비롯 각종 심신수련법에 심취하였으나 남달리 일반 수련인이 알 수 없는 수련계의 참모습을 철저히 알게되는 특이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평소 수련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보다 진실되고, 본질적인 것을 찾아 끊임없이 갈구하던 당시였다. 내가 아바타 교육을 받은 것은 누구의 권유를 받은 것도 아니고 우연히 들른 서점에서 취산 선생님이 번역하신 아바타 교재인 창조학이라는 책을 읽고 스스로 찾아가 배운 것이었다. 그러니 지금 생각해 보면 취산 선생님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취산 선생님과 첫 대면 이후 나의 아바타 안내자인 창언 이구상씨의 연구소에서 취산 선생님을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게되었고 평소 그분이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추구하고 계시는 것을 좀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 분의 소장한 책 중에서 그 당시에는 구하기 매우 어려운 여러 권의 원서를 빌려 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더욱 놀란 것은 선생님은 과학자인 내가 봐도 매우 놀라운 제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호기심과 열의 그리고 깊은 이해력을 가지셨고, 그것은 보통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1994년 10월에는 대전 연구단지내의 젊은 과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사단법인인 한국정신과학학회가 창립되었다. 설립목적은 시대적 대전환기에 우리민족의 의식전환의 필요성과 새로운 21세기 정신과학시대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중심에는 신과학이라고 말하는 새로운 과학의 흐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동양정신과 서양과학문명의 필연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한계에 달한 20세기 물질과학문명의 종말을 극복할 수 있는 21세기의 새로운 정신과학문명시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정신과학학회 상임이사로 있는 내 자신이 보아도, 지금도 크게 나아진 것은 없지만, 그 당시 한국정신과학학회의 움직임은 그 뜻에 비해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었던 점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가 전혀 없으니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국한된 외국정보의 소개와 그때까지의 알고 있는 현상들에 대한 나열과 소개에 지나지 않는 학술대회, 발표논문의 질적, 양적 수준의 미흡 모든 것들이 초기의 빈약하고 어설피 그 자체였다.

그러나 그때 취산 선생님은 놀랍게도 새로운 의식의 길잡이로서 “지금여기”라는 잡지를 창간하시고, 국제신과학심포지엄을 구상하신 것이다. 한국정신과학학회가 전문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21세기 새로운 정신과학문명을 준비하는 움직임이었다면 취산 선생님은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나 기타의 공적기관의 재정지원 없이 순수한 민간의 힘으로 대중적인 차원에서 그 뜻을 구현을 하셨다는 데에 정말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취산 선생님의 참으로 위대하신 점은 과학자가 아니면서도 현 물질과학의 한계와 그 돌파구가 신과학이라는 결론에 스스로 이르신 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정신수련자들이 개인적인 성취감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를 넘어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스스로 대중화에 용기있게 앞장서신점이라 할 수 있다. 정말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아바타의 창조학이 무엇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다. 그분의 나이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일반적인 관념상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무모한 일이라 여겨진다.

96년 말 내가 KIST내에서 중심이 되어 1년여간의 끈질긴 시도 끝에 드디어 과기부로부터 ‘공간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기획조사 연구’라는 제목으로 신과학과 신기술들의 세계적 현황을 조사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받게되었다. 그리하여 97년 1월부터 6월까지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두 팀으로 나누어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2회에 걸쳐 실시된 일본 출장은 취산 선생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소기의 목적달성에 실패했으리라는 것이 같이 간 일본 출장팀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왜냐하면 팀원들은 대부분 영어에는 능통하나 일본어는 그렇지 못하여 불완전한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었으나 취산 선생님의 능숙한 일본어 덕분에 그러한 우려를 불식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그렇게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무리하게 짜여진 일정 때문에 젊은이들도 지치는 상황에서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놀라운 정력과 의지를 몸소 보여주셨기에 지금도 그 연구과제만 생각하면 취산 선생님께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한 마음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참으로 그 분은 물질적으로 가난하셨으나 정신적으로는 그렇게 풍요롭고 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젊은이의 뜨거운 가슴으로 사신 분을 만나기는 내 현실의 삶에서는 처음이다. 그 동안 ‘지금여기’ 잡지와 신과학심포지엄을 통해 비록 아주 많은 수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들이 얼마나 환호하고 기뻐하였는지를 나는 안다. 또한 그들 한분 한분은 모두가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씨앗과 같은 존재임을 나는 안다.

97년 아주대에서 열린 제1회 국제신과학심포지엄에서 나는 그 현장의 엄청난 에너지의 소용돌이를 직접 보고 느꼈다. 그것은 축제였으며 새로운 세계에 대한 우리의 꿈이었고, 우리의 비전이었다. 나는 그때 취산 선생님의 거룩한 뜻이 한알의 밀알이 되어 우리현실에서 곧 구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올 들어 선생님의 병환이 날로 깊어 가는 것을 지켜보며 선생님이 다시 건강하신 모습으로 한 5년 정도

더 우리 곁에 머물러 우리에게 정신적인 기둥이 되어 주시기를 그간 간절히 바랐었다. 그러나 거의 회복할 수 없는 단계라는 느낌이 들 때마다 이번 제3회 신과학심포지엄의 운영위원장을 맡은 나의 입장에서 이번 심포지엄만이라도 무사히 마치는 것을 보고 세상을 하직하시기를 한편으로 바랬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끝내 심포지엄개최 몇 일전 세상을 하직하시고 말았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번 심포지엄에서 부르스 모엔의 강연 '미지로의 여행'을 들으며 우리에게 죽음이란 없고 단지 의식이 다른 파동의 세계로 옮겨지는 것이라는 평소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켜주는 내용을 들으며 다른 세계로 떠난 선생님의 그리움에 사뭇 가슴이 저려왔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심포지엄장에 선생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있다는 강렬한 느낌과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실 것이라는 느낌도 동시에 들었다. 그러한 생각에 이르자 나는 심포지엄이 계속되는 동안 내내 선생님께 계속 감사하다는 말을 되뇌이고 있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연사들과 운영위원 및 수고하신 여러 회원들과 함께 한 회식에서 정우일 시인이 심포지엄 중에 취산 선생님을 생각할 때 떠오른 시상을 옮겨놓은 시를 낭독하는 감격적인 순간을 맛보았다. 시가 낭독되고 있는 그 순간 나는 선생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 회식자리에서는 선생님이 떠나가신 슬픔보다는 당신에 대한 추억과 사랑의 파동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흥분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주연에서 으레 그렇듯 각자 돌아가면서 노래를 하게되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 내 차례가 오기 전에 끝내게 되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의 노래를 꼭 들어보아겠다는 제안이 들어와 갑자기 마지막으로 노래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때 몇십 년 동안 불러본 적이 없는 "Eternally"라는 곡이 불현듯 생각나 그 노래를 취산 선생님을 추모하며 부르게 되었다.

그 노래의 가사는 대략 다음과 같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사랑과 진실로 영원히...

당신을 처음 본 순간 마치 나의 가슴은 언제나 알고 있는 듯 했지요....

.....중략.....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당신을 영원히 진실로 사랑하겠습니다.

영원히....

끝으로 다시 한번 취산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이 지구의 진화에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때에 오셔서 우리들의 가슴속에 당신의 불을 밝히시고 가신 당신을.....

그리고 선생님께서 뿌리시고 가신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뒤에 남은 우리들은 최선을 다할 것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